

광주공업고 총동창회, 재학생에 장학금 1500만원



광주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지난 11일 30명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 (사진) 총동창회는 또 재학생들에게 물품 등 총 3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동창회는 최근 장학재단이사회를 열고

5·18기념재단 '오월도시락 만들기' 클래스 진행



5·18기념재단은 키포크라이프와 광주-전남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9~10일 이틀간 '오월도시락 만들기'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했다. (사진) 올해 5·18기념재단이 진행하는 우리동네 오월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날 행사는 5·18 특강, 도시락 만들기 실습, 참가자 소감 인터뷰

영탁, 대한체육회 홍보대사 위촉



가수 겸 연기자 영탁(사진)이 대한체육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15일 영탁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대한체육회 대회 의실에서 위촉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영탁은 앞으로 스포츠 재능 나눔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스포츠선진화 등 스포츠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을 펼친다. /연합뉴스

오기프트, 착한가게 가입



장애인가업 오기프트(대표 오종원)가 매월 일정 금액 기부에 참여하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이하 전남 사랑의열매) 모금사업인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전남사랑의열매는 15일 목포시에 위치한 오기프트에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착한가게 가입으로 매월 기탁되는 성금은 전남 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오대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여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KT 전남전북본부, 찾아가는 시니어 정보화 교육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는 15일 영암군청과 함께 '찾아가는 시니어 정보화 교육'을 시행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어르신들이 교육용 기기를 직접 조작하며 음식을 주문하거나 민원 서류를 발급해 보는 등 체험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보이오스피상에 대한 피해사례와 유형별 대처방법 교육도 열렸다.

광주도시공사, 취약계층에 삼계탕 전달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근)는 15일 대한적십자사에 초복맞이삼계탕 나눔을 위해 200만 원을 기부했다. (사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재홍)는 이날 광주도시공사 후원으로 준비된 삼계탕 120인분을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삼계탕은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광주 관내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배식됐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를 통해 성년의날 맞이 자립준비청년 선물세트, 무등산국립공원 자연숲 생태복원 봉사활동, 여름김치 나눔 등 사회공헌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인사

- ◆광주여자대학교
▲부총장 정성일 ▲입학홍보처장 오재연 ▲국제교류처장 김혜정 ▲산학협력단장 임귀자 ▲평생교육원장 손명동 ▲교양기초교육센터장 한중희 ▲교육성과관리센터장 조혜은 ▲외국인학생지원센터장 강신영 ▲홍보실장 최연준 ▲승강학습관장 및 보건진료소장 유혜영 ▲경찰행정학과장 박종렬 ▲유아교육과장 김경란 ▲초등특수교육과장 김영미 ▲간호학과장 조인숙 ▲치위생학과장 문상은 ▲보건행정학과장 배상숙 ▲미용과학부장 김선영 ▲화장품과학과장 민혜정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Start Time, and End Time.

EBS1

Table with 3 columns: Program Name, Start Time, and End Time for EBS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6일(음6월 11일 辛巳)

☎ 010-9790-8237

36년생 허행된 일이나 빨리 포기할수록 유리하다. 48년생 강경책과 은유책을 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0년생 갈탄 기운이 모아지고 있으니 순조로운 것이다. 72년생 무리한다 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위상이다. 84년생 여러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난처해지리라. 96년생 옛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라. 행운의 숫자 : 20, 84
37년생 지켜보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49년생 흑과 백으로 명암을 분명히 하라. 61년생 방심하지 말고 새이 나가는 점이 없는 지 납납이 살펴봐야 한다. 73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자. 85년생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에 놓여 있다. 97년생 능부자 경작하는 심정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2, 96
38년생 넓은 관점으로 조망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년생 좋고 나쁨을 따질 계제가 아니니 우선, 확실히 추진하고 볼 일이다. 62년생 단순한 형태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74년생 눈에 띄는 하자가 있으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86년생 너무 경직되어 있다. 98년생 생시 받아들여도 해가겠다. 행운의 숫자 : 14, 61
39년생 돌발적인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51년생 탄력이 불었을 때를 놓치지 말고 집중적으로 추진하자. 63년생 주변 상황까지 정확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75년생 현대에 집착하지 않고 훗날을 도모하는 편이 낫다. 87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일이다. 99년생 체계적인 정돈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07, 74
40년생 순조로워 보이지만 결과는 미흡하다. 52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만 하느니라. 64년생 생소한 길목에 놓여 있으니 넘겨 질지 말아야 한다. 76년생 본의 아닌 행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88년생 탐스러운 욕질의 과실이 줄렁줄렁 매달려 있다. 00년생 정도를 걷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을 알려. 행운의 숫자 : 43, 70
41년생 결가지는 자치하고 핵심 위주로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 53년생 특별한 의미로써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절실한 편이다. 65년생 놔두자니 거주장소도 버려버려야 할 판이다. 77년생 구부러 놓지 않으면 혼란을 가중할 것이다. 89년생 주도면밀한 판단력이 절실하다. 01년생 문제점의 요인을 해소하자. 행운의 숫자 : 21, 66
42년생 현명한 결단이 위기를 극복케 한다. 54년생 협조자를 자칭하는 이가 나타나는 판국이다. 66년생 소중함을 절실히 실감하게 될 것이다. 78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발단이 될 것이다. 90년생 거침없는 행보를 내딛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02년생 소모적인 경쟁은 상호 파멸을 초래할 뿐이니 자제하라. 행운의 숫자 : 13, 98
43년생 난관과 유혹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한다. 55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큰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67년생 비록 수속 새롭게 채워짐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79년생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바가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91년생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03년생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77
44년생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가 따로 있다. 56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틀림없을 것이니라. 68년생 어떠한 제안에도 능히 당해 낼 수 있으리라. 80년생 자신에게 불리하고 해서 운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92년생 통시다발적으로 속출하여 당황할 수 있다. 04년생 이동수나 매매에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24, 94
45년생 짐작을 버리고 진실을 준비하는 것이 이익이다. 57년생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절실한 문제에 봉착한다. 69년생 미진하더라도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81년생 처음에는 불리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리라. 93년생 지금 즉시 바로 잡아 두어야 뒤떨어지 않으리라. 05년생 생치중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41, 69
46년생 과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이다. 58년생 기회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70년생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82년생 충분히 이완시켜 놓으라. 88년생 탐스러운 욕질이 이익이다. 94년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도를 조절하자. 06년생 서로 사랑이 많아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1, 62
35년생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 47년생 제삼자의 말에 따라 좌우될 필요는 전혀 없다. 59년생 일방적으로 편중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길목에 이른다. 71년생 행운의 바다로 나가고 있으나 배가 너무 작다. 83년생 다수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순조롭다. 95년생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9, 67